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어 한우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소식지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5년 6월호

포커스

한우 배합사료가격 인하, 그 해법은?

한우자조금소식

'한우쿠킹클래스' 한우 전도사 역할 톡톡

전국 축제장에서 한우소비촉진 행사 개최

목장탐방

경북 영천 잘미농장

우리한우판매점 탐방_충청북도편

옥천 향수한우판매점



목 차CONTENTS

2015년 6월호









포커스

03 한우 배합사료가격 인하, 그 해법은?

한우자조금 소식

07 한우 모든 정보 '한우키우기' 앱에서 확인하세요!
08 '한우쿠킹클래스' 한우 전도사 역할 톡톡
09 '한우쿠킹클래스' 를 다녀와서...
10 전국 축제장에서 한우소비촉진 행사 개최
12 즐거운 일, 힘이 필요할 땐 한우와 함께!

한우협회소식

13 원산지 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MOU 체결

정보마당

14 **농장탐방**_경북 영천 잘미농장
16 **한우시황**_6월 한우 관측
18 **우리한우판매점 탐방(충청북도편)**_옥천 향수한우판매점
20 **뉴스클리핑**_이달의 이슈
22 **한우바르게알기**_다이어트와 한우

독자마당

23 애독자퀴즈

한우 배합사료가격 인하, 그 해법은?

한우농가, 사료 가격 추가 인하 원해



배합사료 원료인 국제곡물가격이 하향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협사료가 4월 사료가격을 4% 인하한데 이어 한 달 만에 추가로 3.2%를 인하키로 하면서, 민간 사료업체들도 사료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더욱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료가격 담합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반면 민간 사료업체들은 이미 현장할인을 통해 판매가격을 '농협사료 수준'으로 낮췄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향후 국제곡물가격 전망과 함께 농가와 사료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보았다.

생산원가에서 사료값 비중 너무 커, 최소 5~10%는 내려야

"열심히 일을 해도 사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죽 써서 뭐 준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돈 없는 일반 농가들은 정부에서 주는 사료구매자금을 받아봤자 1년 뒤에 일시불로 갚아야 하니 결국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지요."

농협이 사료값을 내렸지만 축산 현장에서는 아직 사료가격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적지 않았다. '오를 땐 잘 오르고 내릴 땐 잘 안 내리는 게 사료값 아닌가요?'라는 한 농가의 반문이 이 같은 분위기를 잘 전해주고 있었다. 농가들에게 농협사료의 3.2% 인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묻자 '당초 요구대로 5%가량 인하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10%까지 인하를 요구하는 농가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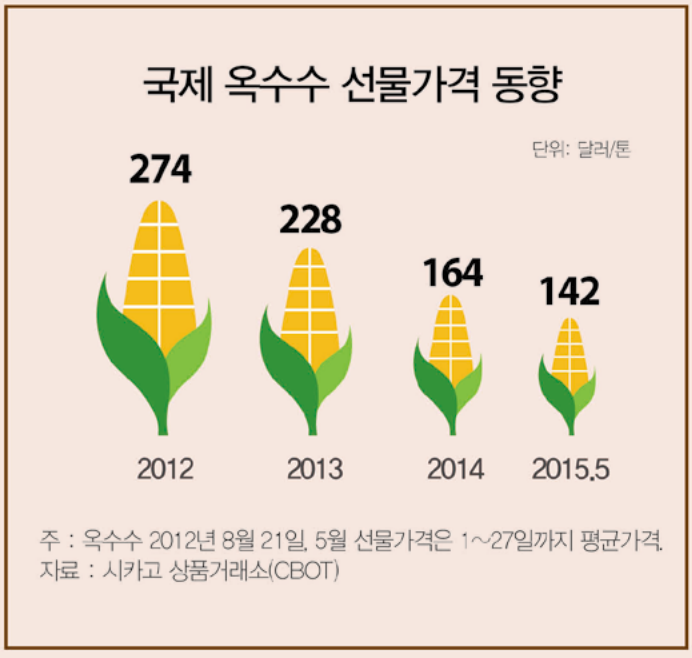
한편, 천차만별인 사료가격에 대해 기준을 잡을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농가들도 많았다. A사료와 B사료를 둘 다 먹여 봐도 사료 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은 25kg 한 포에 최고 2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 현

재 사료가격 표시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당분간 사료 가격 인상요인 없어

그렇다면 농가들의 바람대로 사료가격이 더 인하될 수 있을까? 농촌경제연구원은 "약간의 변동 폭은 있지만 국제곡물가격은 하향보합세이며 앞으로도 크게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도 엘니뇨가 지속된다면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이나 남미 쪽의 옥수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이 더뎌 곡물의 수요 확대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현재와 같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강세가 이어지는 한 수입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관계자는 "국제곡물 가격, 특히 옥수수의 경우 1부셀당 3불50센트가 생산원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가격이 3불50~70센트 선에서 형성돼 있어서 이미 생산 원가에 근접해 있다 보니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며 "앞으로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그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농협사료 7.2%인하 조치로 800억 원 환원 효과"

농경연의 관측에 따라 일단 외부 요인에 의해 사료 가격이 더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을 때, 사료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사료업계의 마진폭을 줄여 제품 단가를 낮추는 방법 밖에 없다. 일단 농협사료의 경우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7.2%를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농가들이 800억 원가량의 환원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농협사료 홍보담당자는 "작년대비 옥수수 가격이 많이 내렸고 올해 말까지는 주요곡물을 다 구입한 상태"라며 "환율이 안정될 거라는 가정 하에 4%, 3.2%씩 총 7.2%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일반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을 최대로 내는 게 목표지만, 농협사료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일정의 수익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가격인하나 이윤배당 등으로 환원하고 있다"며 "농협사료 가격 인하 조치는 민간사료업체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7.2% 인하는 농협사료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결정한 가격이라는 것.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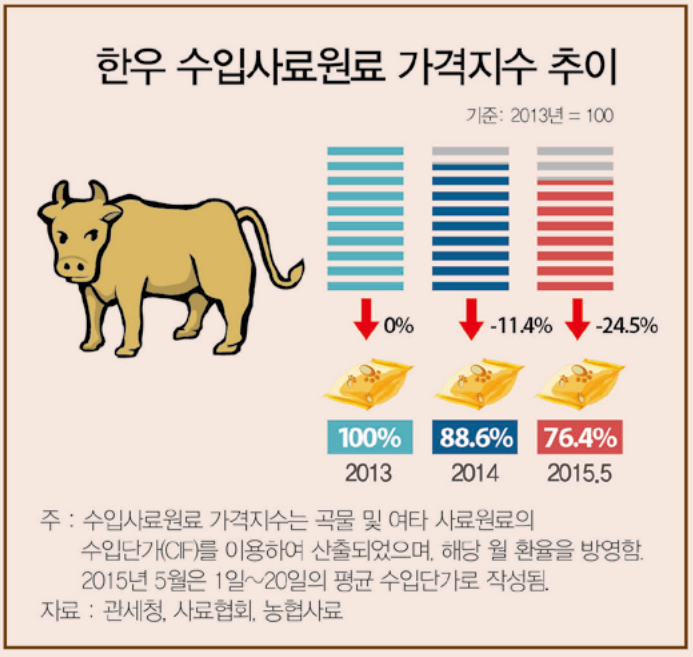
사료 홍보담당자는 "농협사료의 매출이익률은 1.6~1.7%정도로 매년 매출원가와 수익을 공시하고 있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21명의 이사진 가운데 농축협조합장이 17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수익만을 쫓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국 15개 공장에서 사용할 원료수입곡물을 공동으로 구매, 원가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농협사료보다 10~20% 비싸다면 누가 민간 업체사료를 써요?"

농가들의 사료가격 인하 요구에 대해 민간 사료업계는 '이미 가격을 내릴 만큼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 사료업체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서 '충분한'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간 사료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가격은 영업일선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에서 매달 내부지침을 내리는데, 농협사료에 버금가게 인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결과 판매가격은 농협사료보다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료협회 관계자 역시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농협사료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민간 사료업계가 농협사료처럼 특정 일자를 시점으로 사료가격 인하조치를 발표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농협의 시장점유율이 35%이고 민간업체의 점유율이 65%인 상황에서 50개 회원사가 65%의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려면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대농가나 OEM방식의 주문사료, 지역브랜드 공동구매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이미 현장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 추가로 내릴 수가 없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사료 쓰는데 옆집 사료 값도 몰라

이처럼 사료가격에 대한 입장차가 엇갈리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료가격표시제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협사료의 경우 '1물 1가' 제를 통해 농장 규모에 상관없이 같은 가격으로 사료를 양축가들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민간 사료회사의 공장직송 물량은 가격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사료원가 공개요구 역시 '기업 고유의 영업비밀' 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민간 사료업계는 "농장 규모와 여수신 조건, 거래 년수, 수의서비스 포함 여부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다. 똑같은

사료를 쓰는데 옆집에서 얼마에 쓰는지 모르다 보니 내가 쓰는 사료가 싼지 비싼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 또한 규모가 영세하거나 공동구매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민간업체의 사료를 사용한다면 할인 혜택을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

사료업계는 사료업계대로 고민이 많다. 공동구매로 구입하는 한우농가들이 많아졌기 때문. 민간사료업체 한 축우 PM은 "저희 회사의 경우 공동구매가 70~80%가량 되는데 물량 1천 톤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떤 업체가 정찰제로 가격을 써낼 수 있겠냐"며 되물었다. 또한 "한우협회 시군지부의 경우 10마리 키우신 분도 가입이 돼 있는데 공동구매를 통해서 1천 톤씩 구매하시는 분과 같은 가격으로 사료를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사료가격 표시제가 이처럼 유명무실해 진 이유는 무엇일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처음 사료가격 표시제를 마련할 때만 해도 회사별로 가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 최소한 평균치라도 알고자 시행하게 됐고, 공장직송 사료가격까지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대리점가격만으로 한정하게 됐다"며 "아직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료가격 관련 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개범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업계 상생 위해 양질의 사료를 저렴하게 판매해야

실정이 이러니 농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료가격이 생산비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에도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브랜드화 때문에 단일사료를 썼는데 조합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했어요. 7개사가 참가해 2개 회사를 선택했는데 제안 가격이 매우 저렴했고 1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철원지역 한 농가의 말이다. 그러나 이 조합에서는 1년 뒤 기존 사료를 쓰겠다고 돌아선 농가들도 있었다고 한다. 사료값은 저렴했지만 증체율 등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농가들 사이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협회와 자조금, 농협사료, 민간사료회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정 사료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상생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농가도 있었고, 우리나라 사료회사들이 수입곡물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자조금으로 연구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들은 이 말을 전하고 싶어 했다.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협사료가 가격을 낮추면 더 빠르든 더 늦든 일반사료회사도 따라서 낮출 수밖에 없다고 봐요. 농협사료의 선제적인 인하조치를 기대합니다."

한우 모든 정보 '한우키우기' 앱에서 확인하세요!

시세, 농장관리, 뉴스 등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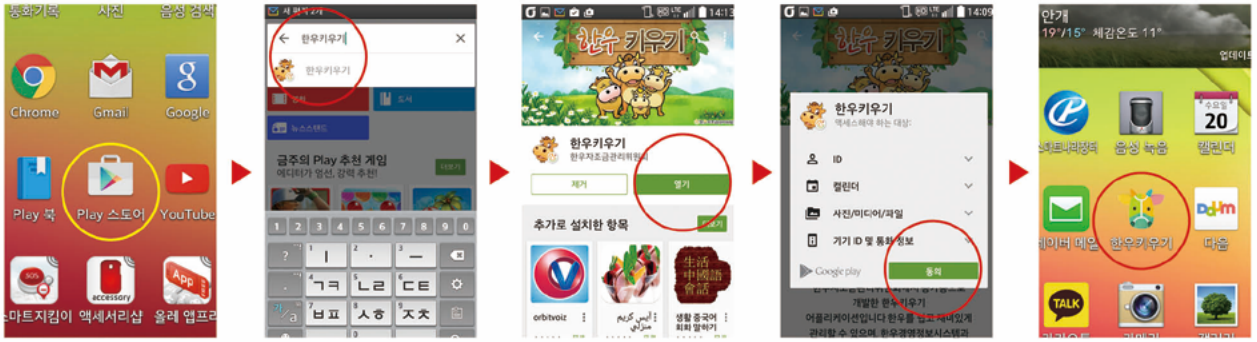
"한우의 모든 정보 내 손안에 있소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최근 한우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한우키우기' 앱에 더 많은 정보와 편리성을 더해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다.

한우키우기 앱에는 한우 가격동향, 한우관리, 조사연구, 한우뉴스, 알림방, 우사꾸미기 메뉴가 설치되어 있다. '한우 가격동향'의 경우 그날그날의 산지 도매가격이 제공되며 더 자세한 동향을 알고 싶을 경우 '가격동향 자세히보기' 버튼을 누르면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가격통계 정보로 이동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우관리' 메뉴에 내 농장의 현황을 등록해 놓으면 한눈에 관리상황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알림방'의 경우 자조금 공지사항, 문의사항, 게시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직접 궁금한 질문을 올릴 수 있으며, '조사연구' 메뉴에는 그동안 한우자조금사업으로 실시한 조사연구목록과 간단한 연구요약 자료가 소개돼 있다.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진행하여야 한다.

'한우키우기' 앱 다운받는 방법



① 구글스토어를 클릭한다.

② 검색창에 한우키우기를 입력한다.

③ 한우키우기 어플이 나오면 설치를 누른다.

④ 동의를 누른다.

⑤ 설치가 완료되면 한우키우기 아이콘이 생긴다.

'한우쿠킹클래스' 한우 전도사 역할 톡톡

한우자조금,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한우 요리 선보여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색다른 한우 요리가 소개된 '한우쿠킹클래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지난 5월 13일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우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임으로써 한우소비를 촉진시키고자 26명의 주부를 초청하여 '한우쿠킹클래스'를 개최했다.





'한우, 부위별로 즐기는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주제로 한우 안심과 앞다릿살을 이용한 스테이크 및 샐러드, 덮밥 등 요리가 소개된 이날 행사에서는 박해리 홈파티쉐프가 직접 조리 과정을 시연해 보이며 한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우쿠킹클래스'가 끝난 이후 온라인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먹지 못하던 한우고기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한우 요리가 화제가 되었다.

복돼지맘(레나와 민쿤의 해피스토리)의 블로그를 비롯해 별별이맘(별별이 가족이야기), 잘나가는 은정(골프와 여행, 요리는 즐거워), 키위새(어금니 꽉), 현서은맘(예니의 서툰 블로그) 등 16여 개의 블로그에 관련 체험담 등이 상세히 게재되었다.

현서은맘은 "요리를 배우기에 앞서 한우자조금으로부터 우리 한우의 우수성과 기본적인 상식들을 듣고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한우 상식을 바로 잡을 기회가 됐다"며 "이후 진행된 한우 요리시간에는 '부드러운 식감의 풍미 만점 안심 샐러드', '육즙이 풍부한 일본식 소고기덮밥', 한입에 베어 먹는 '코티지 파이' 등을 보고 배우면서 한우 요리의 새로운 면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한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고 맛있는 한우요리도 맛봐서 정말 좋았어요



글_ 박은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타파웨어가 함께하는 '한우쿠킹클래스'가 6월 13일(수) 남영동 타파웨어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한우쿠킹클래스에는 동반자 1인이 함께 참여했는데, 6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평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함께하면서 야생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경기도 이곳 저곳을 걸으며 우리 옛길에 대해 공부하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웃 블로거님을 초대 했습니다.

쿠킹클래스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분 들이 와계시고, 알록달록 예쁜 주방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우리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의 소로, 육우나 수입산 소에 비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미노산, 올레인산, 불포화지방산 등이 소고기의 주성분인데, 특히 맛을 좌우하는 올레인산은 수입육 대비 10%나 더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한우를 많이 먹으면 면역력 증진과 아이의 체성장에 좋고 노화방지, 골다공증 및 각종 질병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우를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쿠킹클래스에서 만들어본 요리는 '부드러운 식감의 풍미만점 안심 샐러드'와 '육즙이 풍부한 일본식 소고기 덮밥'이었는데 두 가지는 강사님이 시연해 주셨고, 참가자들은 '한 입에 베어먹는 코티지 파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리가 끝난 후 만든 음식을 동반자와 함께 먹으며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아삭아삭 싱싱한 야채에 한우 안심을 구워 올린 샐러드는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한우 쿠킹클래스는 한우요리도 맛보고 한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수 있게 해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만나다

전국 축제장에서 한우소비촉진 행사 개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 가운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을 대상으로 한우소비촉진행사를 전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어린아이 성장에서부터 다이어트, 임산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효능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우인만큼, 홍보부스 주변에는 축제관람객들의 관심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도민과 함께한 '전북명품한우축제'

지난 5월 14일부터 3일간 전주시 공설운동장에서는 전북명품한우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도내 14개 시군지부가 함께한 이날 전북한우명품축제에서는 14일 개막을 시작으로 한우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해 다트놀이, 각종 한우요리 시식 등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되어 전북도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특히 개막 당일 열린 한우요리경연대회에는 총 5개 팀이 참가해 한우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비롯한 소고기냉채, 한우 양배추말이, 각종 한우 도시락, 비프핫도그, 야채꽃 한우 등 다양한 요리 솜씨를 뽐냈다.

한우요리대회에서 '한우스테이크와 샐러드'로 1등을 차지한 이영미(완주, 주부)씨는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로서 우리한우를 보다 영양가 있고 쉽게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대회를 도전하게 됐다"며 "이번 한우축제를 계기로 누



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한우에 대한 우수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중인초등학교를 비롯한 초포초, 유화학교, 대성초, 문정초, 용덕초 등 전주시 소규모농촌학교 7개교에 한우불고기 500인분을 기증해 축제를 더욱 훈훈하게 했다.

각지에서 실시된 다양한 한우소비촉진행사

이외에도 5월 한달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는 한우협회 시군지부가 주최가 되어 한우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구석기축제(1~5일)와 양평산나물축제(1~3일)에 한우홍보부스가 마련된 가운데 한우바로알리기 캠페인 및 한우 시식행사 등이 실시됐으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꽁당보리축제(1~3일)와 전북한우명품축제(14~16일)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남원축산물명품관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할인판매행사 등이 전개됐다.

또한 충남 공주에서도 한우소비촉진행사(1~17일)가 17일간 진행되면서 한우판매에 박차를 가했고, 제주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한우직거래 소비촉진행사(7~10일)를 진행해 도민은 물론 외국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에서는 함평나비축제(1~5일)장 한쪽에 부스를 마련하고 한우홍보를 한데 이어 5월 8일에는 영광군지부가 어버이날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경남도에서 역시 함안아라제축제(1~3일)를 비롯해 산청한방약초축제(7~10일), 농업인한마음대회(15일), 밀양아리랑대축제(8일) 등에서 한우협회 각 시군지회는 우리한우를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그밖에 김천 어린이날 큰잔치(5일), 당진축제(4~5일), 울산쇠부리축제(15~17일), 춘천소양댐 용녀미길 걷기대회(16일) 등에서도 각각 한우소비촉진운동 및 한우특별할인 행사가 각각 진행됐다.





즐거운 일, 힘이 필요할 땐 한우와 함께!

SBS '황홀한 이웃' 드라마 협찬 진행

지난 5월 6일 SBS 아침 드라마 '황홀한 이웃' 프로그램에 협찬을 진행했다. 주인공 공수래의 기력 회복과 회사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한우를 구워먹으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우 소비확대를 유도했다.





6월 주요 행사계획

- 10만 한우 농가와 함께하는 강서나눔문화축제(6. 5)
- 한우114와 함께하는 2015 한우캠핑페스티벌(6. 5 ~ 6. 7)
- 한우맛체험행사
  - 전남 화순 제일중학교(6. 5)
  - 전남 영암 삼호고등학교, 서호중학교, 장천초등학교(6. 25)
  - 전남 영암 낭주고등학교, 독천초등학교, 영암중학교(6. 26)
- 시군지역 소비홍보
  - 강화 약쑥축제(6. 5 ~ 6. 7)
- 방송제작협찬
  - 라디오 : KBS-2FM '김성주의 가요광장 ' 3부에 한우먹고 힘내자 코너 운영(6월~8월)
  - TV프로그램 : KBS-2TV "아침', 한우캠핑페스티벌 소개(6. 9)
- 충북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심포지움 개최(6. 3~4)



원산지 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MOU 체결

협회, 권준호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일 대구 권준호 법률사무소에서 김홍길 회장을 비롯해 문형재 경북도지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준호 변호사와 원산지표지 위반업소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권준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 한우협회를 대신해 한우고기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소송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길 회장은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 온 음식점들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한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가짜 한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영원히 퇴출된다는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준호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징벌적 배상 청구는 당연하다"며 "하루 매출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초대형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될 경우 기껏 벌금 몇 백만 원을 부과하는 가벼운 형사처벌로는 둔갑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한우사육농가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축장 · 대기업축산반대 · 미경산우 비육지원 논의

한우협회 정책 · 제도분과위원회 1차회의 개최

전국한우협회 정책 · 제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완)는 지난 13일 이근수, 김영만, 윤주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해 주요 사안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건별로 사안을 검토하면서 축협 생축장 및 대기업 축산 진입과 관련하여 전국 농축협 생축장을 파악해 목적에 맞게 사육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축협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위탁농가를 대상으로 축협이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소를 길러 출하하도록 하여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예탁'사업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 축산진입에 대해서는 전업농, 가족농, 준기업농, 기업농 등 사육 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차등 지원 등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사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영수지를 높이는 것"

경북 영천 잘미농장

대기업 크레인 기사를 그만둔 후 한우 6미리를 가지고 경북 영천에 정착한 잘미농장(경북 영천 청풍) 이기칠 대표. 30년 만에 한우 440두(거세우 174두, 암소 266두)를 사육하는 대농이 된 이기칠 대표의 경영노하우를 들어보자.



작년 1등급 출현율 89.3%, 도체중 평균 487kg

잘미농장은 지난해 거세우 56두를 출하해 1등급 출현율 89.3%, 도체중 487kg의 성적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도체중이 500kg이상 소가 24마리로 그중에서도 최고는 567kg에 달했으며, 등심단면적이 100㎠가 넘는 소가 9마리, 이중 최고는 115㎠로 기록됐다. 이는 농수산대학 축산과를 졸업한 아들과 15,500㎡(4,700평 사옥 포함)의 우사를 단둘이 관리하며 만들어낸 성과다.

잘미농장에서 눈여겨 볼 것은 농장운영을 철저하게 자동화 · 분업화해 생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농장을 신축하면서 자동급여시스템을 설치했고, 우사 중앙에 레일을 깔아 수레를 타고 조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00마리 소에 대해 개체관리가 쉽도록 1산 우사, 2산 우사, 거세우 우사, 암소 우사 등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각각 개월수로 나눠 개별관리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두 번이나 농장을 이전, 지금의 한적한 곳에 농장을 신축해 소음을 최소화 하는 한편, 우사 출입시 소들이 놀라지 않도록 평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지금은 낯선 이들이 들어와도 소들이 거의 동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돼 있다.

이기칠 대표는 많은 소를 사육하고 있는 만큼 차단병역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농장에 외부인들의 출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사료차나 출하차 방문을 막고 직접 5톤 트럭을 구입해 소 출하나, 사료 구매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까지 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울러 사양관리는 2001년 설립된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의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사료와 유통 역시 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출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보다 30%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암소도 3산미만으로 일괄 출하, 경제성 중시

농장운영에 있어서는 규모에 맞게 철저한 경제 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40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소를 늘리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개월 수에 맞게 전부 출하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번식 위주로 경영할 거라면 개체별로 개량 프로그램을 만들어 8~10산까지 가면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농장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30~31개월에 출하하기 때문에 좋은 소라고 해도 남겨둘 공간이 없어요. 지금도 30마리 가량 후보군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밀어내기 식인 거죠. 경제성을 따지자면 꼭 교과서 같은 방법으론 어려워요."

잘미농장의 경영노하우

1. 자동화시스템으로 비용 절감
2. 차단방역으로 질병 예방
3. 체계화된 사양관리프로그램 이용
4. 경제논리에 의한 소 출하

그래서 잘미농장의 소들은 3산 이상의 소가 거의 없다. 개량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많은 두수를 사육하며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의 기본적인 생리 특성에 주목해야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개량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봤는데, '보석'을 뽑는 게 별로 안돼요. 작은 금덩어리를 요만큼 갖고 있는 건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암소도 2산 이후에는 비육우로 판매하고 있어요. 3산 때부터는 송아지를 한 마리 생산하면 증체율이 20% 정도 줄어드니까 초산과 2산소가 자기 몸도 키우고 송아지도 생산하는 것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잘미농장이 경영 수지를 맞추고 우량의 소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된 데는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의 공이 크다고 한다. 조합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던 이기칠 대표는 조합에서 우량의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유통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소 사육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6~8월 1등급 도매가격 15,000원/kg 내외 전망

사육전망

• 6월,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대비 감소 예상

– 6월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288만 마리)보다 감소한 273만 마리 전망

– 9월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282만 마리)보다 감소한 269만 마리 전망

공급전망

• 6~8월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거세우와 암소 출하 예정 물량이 적고 작년보다 추석이 늦어져 6~8월 도축은 전년 동기간보다 20.7% 감소한 21만 4천 마리로 전망

– 향후 국내 한우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6~8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7.8% 증가한 7만 6천 톤으로 전망

가격전망

• 6~8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5,000원 내외 전망

–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여 6~8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3% 상승한 kg당 15,000원 내외(생체 600kg 환산 537만원)로 전망

한우 도매가격 상승으로 입식의향이 높아져 송아지 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이후에도 도매가격 상승세 전망

[한우 단기 가격 전망]

단위: 원/지육kg(만원/600kg)

한우		6~8월	
		2014년	2015년
큰소 (1등급)	산지(600kg)	525만원	537만원
	도매(지육kg)	14,606원	15,000원 내외
수송아지(6~7개월)		269만원	270~29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사육과 가격 동향 및 전망(5.26)' 인용하여 한우자조금사무국교육조사부에서 재편집한 내용임]

■ 송아지 가격 급등은 비육우 생산원가에 부담

■ 계획적인 송아지 입식과 출하 노력 필요

• 5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 5.26일까지의 기준임.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구 분			평년 ('10~'14)	2014년		2015년		대비(%)	
				4月(A)	5月(B)	4月(C)	5月(D)	C/A	D/B
도축두수(두)			827,324	75,188	52,590	71,371	52,690	△5.1	0.2
경매두수(두)			379,185	40,157	26,699	39,092	28,248	△2.7	5.8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3,406	13,697	13,986	14,757	14,717	7.7	5.2
	거세우		14,569	14,639	15,039	15,380	15,635	5.1	4.0
	비거세우		10,624	10,916	11,065	12,102	11,745	10.9	6.1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3,910	4,115	4,112	4,697	4,682	14.1	13.9
	송아지	암	1,511	1,591	1,581	2,109	2,183	32.6	38.1
		수	2,045	2,404	2,465	2,602	2,736	8.2	11.0
불고기(1등급/kg)			32,690	32,120	32,852	36,471	34,456	13.5	4.9
등심(1등급/kg)			61,957	60,589	61,883	64,057	64,316	5.7	3.9

• 한우농가 소득 추정('15.5월 한우평균 도매가격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18,382	6,606	4,356	2,250
1+	16,580	5,959		1,603
1	15,070	5,416		1,060
2	13,088	4,704		348
3	10,994	3,951		△405

* 경영비 : '14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356천원/600k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 청정지역의 옥천한우 '바로 이 맛이야!'

충북 옥천 향수한우판매장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 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정지용 시인의 '향수' 에서〉

동쪽에는 소백산맥의 지맥이 뻗어 마니봉, 월리봉, 대성산이 자리하고 금강 상류가 감입곡류 하며 북서류하는 청정지역 옥천. 이 지역은 대청댐 상수원수질보호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모든 축산이 친환경으로 거듭나 청정한우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최고급육 위해 70개월 이하의 청정암소만을 취급

'향수한우판매점'은 지난 2010년 6월 향수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한두원) 농가 242명(한우협회 옥천군지부 회원)이 함께 오픈한 정육점형 식당으로, 200여 평 규모에서 하루 평균 700여 명(2015년 5월 기준)의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한두원 대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한우판매점을 쉽게 찾아 볼 수는 있지만 향수한우판매점과 같이 70개월령 이하의 청정암소만을 100% 취급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품질을 자부했다.

한우의 생명은 육질에 있다. '향수한우판매점'은 판매점 안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구매해 바로 구워 먹을 수 있어 저렴한 값에 최고의 한우를 즐길 수 있다.





향수한우판매점의 또 다른 인기메뉴는 바로 범국민 음식인 '갈비탕'이다. 뚝배기 가득 담긴 갈비의 양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다소 많아 보일 정도다.

부드러운 육질과 젓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분리되는 뼈, 시원한 국물은 9,000원이라는 값이 미안할 정도다. 여기에 청정 옥천 쌀로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말고, 알맞게 잘 익은 깍두기와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 보양식이 된다. 점심시간이면 넓은 식당이 만원을 이룰 정도.

열린 공간이 부담되는 가족단위나 VIP고객들을 위해 8개의 방도 별도로 갖추고 있다.

향수한우판매점을 찾는 고객들은 옥천지역 주민이 20%, 대전 등 타지역 손님들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유명세를 타고 있다.



242명의 향수한우영농조합 농가가 하나로 뭉쳐 탄생한 '향수한우판매점'

향수한우판매점에서는 개점 5년 만에 옥천군 내 한우협회 회원 농가에서 출하되는 한우를 매월 100여 두씩 판매해 연간 1,200여 두를 소비함으로써 월 매출 6억여 원을 올리는 충북지역 최고의 한우판매점으로 거듭났다.

한편 TMR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향수영농조합은 지난해 육가공시설 허가를 받아 시설을 완비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숙원사업인 3차 산업에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옥천지부에서는 관내 한우 협회 농가를 대상으로 초음파 등급판정이나 각종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가 스스로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수한우판매장

-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화길 86번지(삼양리)
- **전화** | 043-733-9577
- **영업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 **휴일** | 명절
- **정식 메뉴** | 상차림(1인) 성인 3,000원, 어린이 1,500원
  한우육회(300g) 15,000원, 공기밥 1,000원,
  함흥냉면 5,000원, 한우갈비탕 9,000원,
  한우곰탕 6,000원
- **점심 특선** | 한우불고기전골(300g) 8,000원,
  함흥냉면(후식) 3,000원





한우농가들이 최근 한우산업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동안 일간지 및 축산전문지에 소개된 한우관련 이슈를 간추려 게재합니다.

쇠고기의 부위별 명칭, '이것'만 알면 좋은 쇠고기 골라 먹을 수 있다!



쇠고기의 부위별 명칭, '이것'만 알면 좋은 쇠고기 골라 먹을 수 있다!
쇠고기의 부위별 명칭이 화제가 되면서 좋은 쇠고기 고르는 방법에도 덩달아 궁금증이 증폭됐다. 특히나 쇠고기는 부위별로 요리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이, 탕, 국, 산적, 스테이크, 불고기, 전골 등 요리 방법에 따라 알맞은 부위를 고르는 것이 좋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좋은 쇠고기 고르는 요령과 남은 고기 보관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먼저 탕국은 사태나 양지 등 국거리용 고기를 사용하는데 이 부위는 선적색의 살코기와 지방, 근막과 같은 결합조직이 적당히 있는 것이 좋다.

〈MBN 5월 10일자〉

민간업체 사료 값 인하 '모르쇠'

전국한우협회 "계속 외면땐 불매운동 등 전개"

농협사료가 3월 말 4% 가격 인하에 이어 4월29일 3.2%를 추가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사료업체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축산농가들 사이에 민간 사료업체들의 '모르쇠'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농협사료가 올 들어 2차에 걸쳐 7.2%를 인하하는 동안 민간 사료업체들은 상반기 중에 회사별로 1.5~5% 선에서 가격을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점유율 상위권 민간업체 11개사가 사료 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밝혀지며, 생산비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자기 잇속만 챙겨 왔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농민신문 5월 13일자〉

한우 암송아지 가격, 수송아지 근접

입식 수요와 번식의향이 높아지면서 한우 암송아지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수송아지와의 가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8일 열린 양평축협 송아지 경매에서는 암송아지 22두와 수송아지 44두가 출

수송아지 가격의 80%까지 '껑충'

장했다. 이날 출장한 암송아지 중 내정가격 205만원짜리가 325만원에 낙찰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암송아지와 함께 다른 암송아지 한 마리도 305만원에 낙찰된 것을 비롯해 평균 낙찰가격도 230만원대를 기록했으며 최저 낙찰가도 162만원이었다.

〈축산신문 5월 13일자〉

한우농가 입식 신중 기해야



최근 송아지 입식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산지 송아지값이 급등하고 있다. 수송아지와 암송아지 3월 거래 평균값이 각각 231만1000원, 180만9000원에서 4월에는 262만원, 213만5000원을 형성, 한달 새 13.4%, 18%나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이같은 오름세는 이어져 지난 6일 수송아지 평균값은 269만2000원, 암송아지는 216만1000원에 거래됐다. 일부 가축시장에서는 혈통 등록된 수송아지가 300만원 이상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민신문 5월 15일자〉

국산 육류 안전성 선진국보다 높다

국내산 육류의 안전성 수준이 유럽연합(EU) · 미국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 4년 동안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염소 포함) · 말고기 등 국내산 육류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한 결과 위반율은 평균 0.14%에 불과했다. 연도별 위반율은 2010년 0.15%, 2011년 0.13%, 2012년 0.21%, 2013년 0.10%였다.

〈농민신문 5월 22일자〉

빈혈 · 난임 · 갱년기 우울증… 신체 변화 많은 여성, 육류 섭취는 필수

육류 과소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 질병은 빈혈이다. 대한영양사협회 문현경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의 빈혈은 생리불순, 난임 및 불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식습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팀은 "신체조직에 필요한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생기는 빈혈은 발생원인의 60%가 철분결핍이다. 빈혈 예방을 위해 가장 빠른 해결책은 육류 섭취이며 생애주기 대상별로 현재의 식습관을 바탕으로 하는 적절한 육류 섭취에 대한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5월 26일자〉

한우로 미리 다이어트, 올여름 멋진 휴가를!

아직 5월인데도 한낮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내리는 등 벌써부터 더운 열기가 가득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연한 여름, 이른바 '노출의 계절'이 다가온다. 휴가철 해변에서 멋진 몸매를 자랑하고 싶다면 미리 지금부터 한우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자.

한우 고기를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살이 빠진다!



[오한진 박사]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내는 반면 단백질은 1g당 4kcal밖에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코기를 먹는다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우 고기는 위장에서 소화되는 데 약 3~4시간 걸립니다. 탄수화물보다 위가 든든해 배가 덜 고파지므로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단백질 한우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제격!

[임경숙 교수] 다이어트의 적으로 지목되는 지방은 인스턴트식품이나 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입니다.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중을 늘게 하는 고탄수화물 식단에 비해 고단백질 식단이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한우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부위로는 한우 엉덩이 안쪽의 우둔살이 있습니다. 연하면서도 맛이 담백하고, 지방이 적은 살코기 부위입니다. 또 사태고기도 100g에 단백질 20g, 130kcal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을 적게 두른 두꺼운 팬에 부드럽게 굽거나, 뜨거운 물에 삶아 얇게 썬 다음 채소와 함께 먹으면 퍽퍽한 느낌이 적어 먹기 좋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비타민과 피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우 안심과 우둔, 설도, 사태는 다이어트 부위다!



[구본길 쉐프] 한우의 안심이나 우둔, 설도, 사태 등의 부위는 닭 가슴살 못지않은 고단백질 부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아연과 철분, 비타민이 많아 오히려 다이어트를 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우를 다이어트식으로 먹을 때는 구워서 먹는 것보다 찌거나 삶아서 담백하게, 또는 육회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와 같은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퀴즈 QUIZ

피곤하고 나른하시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B사진에서 A사진과 다른 곳 두 가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한우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 원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05월호 정답
배지
넥타이색깔

※ 애독자퀴즈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내
애독자퀴즈 코너에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주소 및 연락처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호 퀴즈 당첨자

구혜숙 경남 진주시 내동면
장태상 경기 안성시 일죽면
박희옥 인천 부평구 산곡3동
차상예 경북 성주군 용암면
안창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최정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우자조금 소식지 비매품

2015년 06월호 통권 제116호

발행일 2015년 6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서초동) 케피아회관 2층 홍보마케팅부 **전화** 02-522-3608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 (주)인포아트커뮤니케이션(02-2269-5029) **인쇄** 삼진P&C(02-2271-0860)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신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전제할 수 없습니다.

한우의 모든 정보 내 손안에 있소이다!



스마트폰으로
농장, 시세, 연구자료를
한 눈에 확인하세요!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방법 한우키우기 를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 아이폰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우의 모든 것, 한우114로 오세요!

www.hanwoo114.co.kr

부위별 최대 **30%** 할인!

안심, 등심 등 구이류부터 저지방 부위, 특수 부위까지
*한우의 모든 부위를 **착한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할인폭은 시세에 따라 변경되어 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한우 구매가 가능합니다.